

# 희망 실천

2009. Summer 통권 제2호 VOL.02

EM  
실천

정신장애인의 신비람 나는 일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사업

Summer 2009 | VOL. 02

# 계절

## 봄.

산뜻한 날씨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 여름.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느낌은 빛이 나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 가을.

파란 하늘과 붉은 낙엽은 자연의 변화입니다.

## 겨울.

흰 눈이 쌓인 설경은 하얀 세상입니다.



# Contents



04

04 **희망 RACE** | 마라톤대회 후기



10

06 **HELLO EM실천!** | • 동아리프로그램 중간보고

• 내인생의 활력소 EM실천 (자원봉사자 글)

07 **충성!** | 충성! EM에 신고합니다

08 **그곳에 가고 싶다** | 여행지 소개 『**등봉도**』

10 **일상다반사** | 잘나가는 영혜씨 (외부취업자)

12 **여름캠프 특집** | We are special !!

16 **사회복지동향** | 삼국지의 꿈

18 **EM실천의 夏** | EM실천의 2/4분기 소식

20 **취업정보** | 일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12

2009.6 **June**

발행처 EM실천(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봉천8동) 1531-27  
전화 02-875-9744, 9733 팩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http://www.em21c.com)





# 희망 RACE

| EM실천 근로회원 **황찬희**

화창한 초여름이다.

우리 EM실천이 2009년 장애인 희망마라톤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어떻게 마라톤을 하지'라며 걱정도 했지만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평소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터여서 이런 대회에 참가한다는게 좀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드디어 6월 13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향하는 행군이 시작 됐다. 김영환 원장님을 비롯 임성수 팀장님과 신혜영, 양현모 선생님과 인쇄소 김형광 실장님 등 EM실천에선 약30명이 참석하게 되었다.





전철을 타고 평화의 광장에 도착하자 50여개 시설에서 모인 5천여군중들로 공원이 빼곡했다. 우린 맨 끝에 마련된 EM실천 천막에 가서, T셔츠와 번호표 모자를 배급받아 옷을 갈아 입었다. 이번 대회는 서울 메트로, 스포츠스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대회여서 노란 T셔츠, 흰 모자가 아주 화려하게 대회장을 빛내 주었다.

후원은 서울특별시, 대한 체육회, TBS등이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O2물도 배급받았다.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참석해 주어서 마음이 일편 푸근했다. 스포츠스타들과 사진 찍기를 마치고 드디어 광장에 모인 5천여명 식구들의 걷기대회가 시작되었다. 제목은 마라톤 대회였지만 마라톤이 취소되어 아쉽게도 3km걷기대회에만 출전했다.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70년대 인기가수 정광태씨가 사회자로 등장했다. 흰 머리털이 나부끼고 선글라스를 쓴 정광태씨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며 스타트 라인에 도착했다. 걸어도 좋

는 sign이 떨어지며 오색풍선이 하늘로 훨훨 날아갔다. 이 대회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팀장 동진씨와 함께 걷게 됐다. 동진씨와 정신장애인이 되게 된 동기, 이후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행군에 나섰다. 코스는 평화의 광장안에 마련된 숲속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었다. 중앙센터에서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와 워킹에 기름을 쳐 주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벌써 끝인지점, 그곳에서 모든 걷기대회를 마친 장애인 동료들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천사(스포츠스타)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다 타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이마냥 우리들은 즐거워했다. 돈까스와 오징어젓갈 찜통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비우고 우리끼리 커피타임을 가진 이후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신나게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는 센터 공연장으로 갔다. 비타민의 서울메트로의 대표 앙상블의 공연이었다. 모두 신나게 노래도 따라 부르고 재밌게 연주하는 앙상블에게 매혹당할 때 즈음 아쉽게 공연이 끝났다.



경품 추첨시간 우리 EM실천이 호명되고 비데와 꽃바구니를 타게 되자 EM가족은 모두 환호성을 올렸다.

특히 서울 메트로 직원들이 장애인 성금을 모아 5천여만원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감동스런 순간이었다.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마라톤 대회는 끝이 났다. 모두가 방실방실 웃는 얼굴로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나도 장애인임을 밝히고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해 비전을 갖자" 난 아직 동창들에게도 나의 장애인력을 얘기하지 않고 지내는 터여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맑고 태양은 싱그럽게 위대하게 불타고 있었다.

종종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자원활동을 하는 시간이 변경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간 수업을 못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지는 한 EM실천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

내가 처음 한울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된 건 지난 겨울의 일이다. 당시 이는 분의 소개로 알게 된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곳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때만 해도 '정신장애'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지는 못 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 나뉘는 보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자원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내 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탓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좋은 기억들을 그저 마음 속 한 구석에 담아두어야만 하기도 했다. 그러던 2009년 봄. 또 다시 인연이 닿았는지, 이번에는 한울재단의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EM 실천'이라는 보호작업장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 번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다. 대상자는 지난번과 다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일을 하고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는 나 역시도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적지 않았다. 우선은 영어회화 수업에 참석하고 공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과 노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열심히 따라 하거나 받아 적으며 수업에 임하는 모습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에 충분 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교류'를 나눔에 있어 이것저것 먼저 판단하고 자신을 위장하는 일에 능숙한 일반 사람들에 비해 훨씬 순수하고 진솔한 그네들의 모습에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웠다.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 스스로의 고민을 고백하고 나누는 일,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일 등은 어느 누구에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순간마다 나의 반응 혹은 나의 끄덕임이 행여나 그들에게는 '괴상적 공감' 정도로 비춰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비록 나는 관련 학문을 공부한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언제나 '진심'이 기만 하다면,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그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자그마한 기대를 해 본다. 종종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자원활동을 하는 시간이 변경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간 수업을 못 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지는 한 EM실천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 아울러 '영어회화'든지 '책읽기 모임' 이든지간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것이다.



▶ 자원봉사자 나혜원



EM실천에서 영어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나혜원선생님은 현재 포천 유암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 충성! EM실천에 신고합니다.

내가 이곳 EM실천에 배치되어 일한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4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처음 EM실천에 왔을 때 원장님이 점심을 사주시면서 다른 공익들보다 일이 조금 더 힘들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웬걸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환경에 적응도 못했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회원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일하는 것도 익숙해져 근무하기에 많이 편해진 것 같다. 처음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신장애인 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부분들부터 떠오르곤 했었는데 우리 회원들과 어울리며 같이 일하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회 복지 분야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런 저런 교육을 통해 복지 분야에 관해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나니 이런 시설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다만 DM발송업무가 많은 날, 트럭에서 짐을 내릴 때나 우체국 가서 DM작업한 것들을 접수 하려고 봉고차에서 내릴 때는 무겁고 힘이 든 생각이 많을 때가 사실이다. 처음 회원들을 보았을 때와는 달리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한다. 내가 저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가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다고 가끔 생각한다. 또 내가 한때나마 근무했었던 곳이니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EM실천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곧 캠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전계획도 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소집 해제되는 날은 아직도 588일이나 남았으니 여기 있던 날보다 있을 날이 더 많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면 후원을 해주고 싶다. 그럼 소집 해제 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일 열심히 해야겠다.



공익근무요원 서 광 원

그곳에 가고싶다!!

# 승봉도

승봉도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남방으로 약 50km 떨어진 섬이다. 섬 전체의 마치 하늘을 비상하는 봉황을 닮았대서 승봉도(昇鳳島)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일레 해변은 이 섬의 남쪽 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길이 1,300m, 폭 40m 정도의 백사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도 낮다. 그래서 간조 때에도 갯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모래사장 뒤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어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한적한 장골해수욕장과도 가깝다. 또한 넓은 공한지가 있어 단체로 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승봉도 유일의 마을은 웅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향토 관광마을이다. 이곳은 민박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400여톤의 지하수 물을 퍼올려 사용하는 샤워장이 피서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 이일레 해수욕장

승봉도에서는 민박에서 짐이라도 풀었다 싶으면 바로 해변으로 뛰어 나간다. 어디로 가나 이일레 해수욕장에 발이 가 닿는다. 반짝이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디디면 그 뜨끈함에 우선 놀란다. 또 서해바다인 반면에 물이 상당히 맑다. 물밖음에 한번더 놀랄 것이다. 1.3km에 달하는 해변이 절끝까지 맞닿아 있다. 흔히 돌아다니는 지도에 절골 해수욕장과 이일레 해수욕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은 한곳이다. 이일레에는 물이 빠지는 사리 때에도 벌이 드러나지 않는다. 물이 찰때면 해변 갯바위까지 찰랑대는 모습이고, 물이 빠지면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 제 각각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또 해변 뒤로는 이름드리 소나무숲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물 속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절이라면, 소나무 숲 속 벤치에 앉아 한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얀 파도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사랑이라도 속삭여 볼일이다.



이일레 해수욕장

## 사승봉도 [砂昇鳳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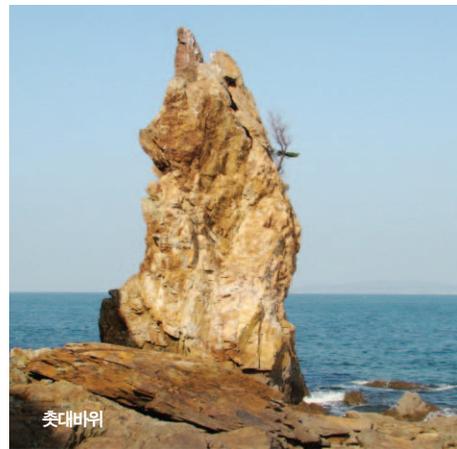
승봉도에서는 '사도'라고 부른다. 개인이 소유한 섬으로서 관리인만 살고 있는 무인도이다. 이곳에는 길이 4km, 폭 2km의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언덕 위에는 해송, 참나무, 오리나무, 칙 등이 우거져 있다. 깨끗하고 고운 모래로 다져진 백사장은 야영하기에 좋으며 갯바위에서의 바다낚시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피서철에는 승봉도 선착장에서 부정 기적으로 배가 다니지만, 비수기에는 섬에 직접 연락해서 배를 불러야 한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주변이 조용하고 깨끗하며, 저녁이면 바다 끝으로 떨어지는 석양이 특히 아름답다. 바다의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아 언제나 해수욕을 즐길 수 있으며, 바닷물이 빠지면 골뱅이, 소라, 낙지, 게 등의 해산물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어서 여러 편의 영화와 TV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다.



사승봉도

## 춧대바위

섬의 남동쪽 해변으로 가면 삼각형의 자갈밭인 부두치가 있는데, 모래와 자갈 조개 껍데기가 섞인 아름다운 해변이다. 앞에는 조그마한 돌 섬이 하나 있어 물이 들오면 돌 섬처럼 보이다가 물이 빠지면 모래톱으로 연결되며 그곳에 춧대바위가 있다. 삼각형 모양으로 마치 사람의 손가락이나 춧대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해변 뒤로는 이름드리 소나무숲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물 속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절이라면, 소나무 숲 속 벤치에 앉아 한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얀 파도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사랑이라도 속삭여 볼일이다.



춧대바위

## 도깨비펜션

지형이 마치 봉황새의 머리모양과 같다하여 이름지어진 '승봉도' 그섬에 이름값지 않게 멋스럽음과 낭만이 어우러진 별장같은 민박집 『도깨비펜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일레해수욕장과 사승봉도까지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전망좋은 도깨비펜션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식당과 슈퍼도 함께 경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섬투어도 펜션사장님께 부탁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쾌속선을 이용 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011-9047-3770



도깨비펜션

### 자가용 이용시

#### 경인고속도로(중착점)

인천항 사거리(좌회전) → 구백주년기념탑(우회전) → 해양경찰청 →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사거리(좌회전) → 자월(이작, 승봉)도행선편 → 승봉도

#### 제2경인고속도로(중착점)

서해안고속도로 → 구백주년기념탑(직진) → 해양경찰청 사거리(좌회전) →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 자월(이작, 승봉)도행선편 → 승봉도

### 대중교통 이용시

#### 전철 이용시 동인천역에 하차

연안부두행 버스(12, 24번)이용 → 인천연안부두 여객터미널 → 자월(이작, 승봉)도행선편 → 승봉도

서울 ↔ 연안부두 직행버스 운행 (광역버스 : 1600번 / 서울역, 신촌, 합정)



# 잘나가는 영혜씨~

“저는 정년퇴직할때까지 일하는것이 꿈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강영혜씨를 만나보았습니다!



## Q & A

**Q** 소개부탁드릴게요

**A** 제 이름은 **강영혜**입니다. 나이는 43세 이구요, 5년전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정신분열증이구요, 취업전에는 병원에 입원도 했었지만 지금은 약물치료와 내원 상담치료로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되찾고 있습니다.

**Q** 지금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A** 저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구요 전자부품제조업체로 신림7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제품은 차량 부착용 핸드프리시스템과 안테나 멀티플레이어 등입니다. 처음 취직했을때는 핸드프리공정에 있었는데 진급하여 지금은 좀 더 어려운 안테나제조업무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M실천에 근무할 때 취업의뢰가 들어와 면접을 보게되었고 2007년 2월 15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Q** 하루일과를 소개하자면?

**A** 아침 7시 30분에 회사셔틀버스를 타고 8시 20정도 회사에 도착하면 간단한 아침조회를 시작으로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10분정도 휴식시간을 갖고 여섯시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6시가 되면 나또한 평범한 회사원과 같이 정리,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Q 일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힘든점이 있는지요?**

**A** 우리회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여러분류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말고도 같은 공정라인에는 저같은 정신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어려움점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편견보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특히 정신장애인은 확실히 일반 비장애인과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2년4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증상으로 인한 손떨림 증상이나, 혹은 이상행동으로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역시도 긴장되는 하루를 보낼때도 있습니다.

**Q 일하기 힘들었을때나, 포기하고 싶을때는 없었나요?**

**A** 제손을 거쳐나간 제품에서 불량이 날때는 일하기 싫은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실수란 누구나 있기 마련이고, 직장동료나 팀장님의 도움으로 위로받는답니다.

**Q 일하면서 보람될때, 즐거운때는 언제인가요?**

**A** 취업을 통해서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휴식을 갖는 제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완성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는 날이 될 때면 일한 보람과 함께 그간의 피로도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1년에 2회 정도 진안에 있는 회사 연수원이 있는데 바람도 쐬고 체육대회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수 있는 기회가 많아 즐겁습니다.

**Q 월급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A** 월급받으면,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시구요, 제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대책마련을 위해서지요~ 미혼인 저로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어야 겠지요..

**Q 스트레스 해소방법이나 여가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A** 스트레스 받을때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통해 바람을 쐬면 좋아지는것같구요, 한달에 한번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저녁식사약속도 있습니다. 또한 EM실천 취업유지모임을 통해 그동안 지냈던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Q 취업이란 영혜씨에게 무엇인가요?**

**A** 제삶의 일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을 통해 재할에 도움이 되었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되었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사회생활 범위가 넓어지니 인생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면 정년퇴직 할때까지 취업을 유지하여 계속 근무하는것이 소원이기도 합니다.





# 승봉도에 방문하신것을 환영합니다

## EM실천 승봉도를 가다!

# We are special!

1박(7월9일) **첫째날**



① 이른새벽, 5시 기상! 8시 승봉도로 떠나는 배를 타기위해 6시부터 봉천역에 집합한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② 감매기가 우리를 맞이해주고 너도나도 바닷바람을 가르며 배는 출발하였다. 출출하지만 조촐한 김밥을 먹으며 사진도 찍고, 당파먹기(?) 등 어린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2시간의 시간이 지났다.



③ 드디어 승봉도 도착! 바다가 보이는 팬션, 그림과 같았다. 모두들 짐을 풀고 바다를 맞이하러 사진을 찍기 위해 뛰쳐나갔다!



④ ⑤ ⑥ 식사를 한뒤 모래사장에 자리를 펴고 캠프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게임, 짝피구~ 모두들 파트너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군요...  
 두 번째 게임, 남자들의 피튀기는 축구...  
 이어서 여자들의 수구~ 바다에서 발이 보이지 않게 뛰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리발에 줄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모두 배꼽잡는 시간이었습니다.





7 기대되는 저녁식사시간!  
땀흘리고 먹는 삼겹살 꿀맛입니다~



8 캠프파이어, 우리마음도 오늘동안만은 뜨거웠던 것 같지요? 서로안아주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더 훈훈해 지는 것 같습니다.

2박(7월10일) 둘째날



9 조금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짝을 짓기위해 남자들의 소지품을 모두 걸었습니다!파트너가 맘에 안들더라도 웃으세요~ 스마일 😊  
10 TV에서 봤던 사승봉도, 승봉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작은 섬, 고운 모래와 계들이 지나다니는 낭만의 섬. 그곳에서 저희는 CF를 찍었습니다  
11 한팀은 CF찍고, 다른팀은 승봉도 보트투어를 하였습니다. 코끼리 바위, 촛대바위, 남대문바위 등 시원한 바다를 가르며 보트는 그렇게 달렸나 봅니다. 오빠 달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EM식구들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여름을 이기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여름캠프였습니다.



# 신나는 여름캠프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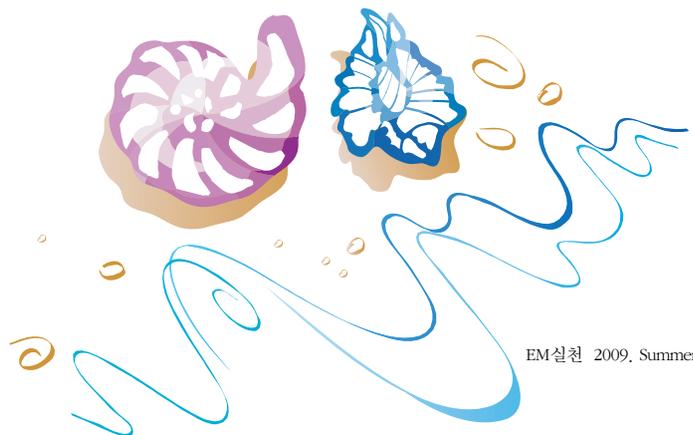
■ 근로회원 **조은숙**



여름을 맞아 미역을 감은 적이 언제인가 추억이 아득하다. 아직은 이른 듯 하였지만, 우리는 때를 만난 듯 하늘이 도와주어 날씨도 매우 좋았다. 왜! 바다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기러기와 우리는 선상에서 온갖 멋있는 포즈도 취하고 예쁘게 기념 사진도 찍었다. 나는 잔뜩 배 멀미를 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으나 이번 여행은 흥이 나면서 재미도 더했다. 그리고 조금 서먹했던 회원들과는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어 두 배의 기쁨이 있었다. 처음 짐을 풀고 나는 앞이 확 트인 비닷가로 가 보았다. 옛날 말 조개를 잡던 생각이 나서 둘러보고 뜨거운 모래밭을 맨 발로 걸어보니 나는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나는 성림씨와 민강씨와 서로 잡아 주며 물놀이를 했다. 성림씨는 유독 물을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는 여러 게임을 했는데 수구도 재미있었고, 또 오리발 신고 모래에서 달리기, 약간 장난스러우나 물에 빠트리기 등등 이렇게 일박은 막바지에 이르고 환상의 초고속 캠프화이어를 하면서 모기에 뜯기고, 장작불에 감자 구워먹기. 그리고 멋진 노래와 반주를 해주는 회원의 덕분에 우리의 즐거움은 한껏 무르익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 할 것을 다짐하면



서 위로와 격려의 나눔 시간을 같이했다. 다음 날, 눈이 떠지지도 않는데 시골시골 샘~께서 깨우는 소리이다. 대충하고 또 일정에 따라 우리는 미팅을 하였다. 시골이라 한산했는데 작은 마을의 코스를 커플이랑 들고 오는 미션이다. 나는 진호씨와 짝이었는데 진호씨는 먹기만 하였다. 내가 이따금 묻는 것 뿐이었다. 그래도 진호씨는 이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앞장서는 것 보다 중심이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도 좋은 몫이라 생각한다. 다음 일정으로 우리는 쾌속정을 타고 사승봉도를 신나게 파도를 가르며 형형색색으로 각자의 모양을 지닌 코끼리모양의 바위, 촛대바위라는 모양의 등등이 있었다. 또 우리는 쾌속정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신나는 비명도 지르고 다른 회원들은 모르겠지만 난 보고싶은 사람의 이름도 불러 보았다. 이어서 사승봉도인 무인도에 정착하여서 우리의 끼와 실력을 발휘하여 캠퍼더를 찍었다. 여러 모습과 패러디를 인용하여 거침없이 하고픈 일을 살짝 비추어 내었다. 나는 어린이처럼 바다에서 폴짝 폴짝 뛰면서 포즈도 취하여 사진도 찍었다.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즐겁고 재미가 한껏 무르익었다. 이에 아쉬워지만 우리는 다음 캠프를 기다려야 했다. 이번 캠프에서 즐겁고 따뜻한 것은 뒤에서 알게 모르게 애쓰신 분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봉사의 역할을 맡으신 정말 잘 생긴 선생님 두 분, 그리고 이엠을 앞으로 당기시는 힘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동참하며 어려워도 잘 해내는 우리 회원들이 있고, 또 우리는 무언가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고 느끼고 너와나 힘들어도 희망이 보인다하며 주저없이 웃으리라 다짐해 본다.





# 삼국지의

## 꿈을 열어가며....



김성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 다니엘 직업재활원 원장)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랑은 매우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해가고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어느 나라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속도를 가지며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에서는 짧은 기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작년 11월 나고야 근처의 도요타시 장애인위원회 초청을 받아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서울의 직업재활 시설들이 경영성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영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많은 장애인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의 실무자들이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나의 발표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다. 일본의 직업재활시설들도 한국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한국의 새로운 시도를 자기들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과 제도를 배우고 또 현장에서 활용하였다. 하지만 인제는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현장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 밤이 지나가면 난 중국의 하얼빈으로 떠난다. 중국 하얼빈의 장애인협회 초청으로 내가 협회장으로 있는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교류협력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중국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대로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장애인분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그동안의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의 발전 경험을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무엇인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였다.

우리가 한, 중, 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매우 패쇄적이거나 사대주의적 사고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반일감정과 중국에 대한 의식적인 비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찾고 그 위에 새로운 문화와 변화의 시도를 얻는 노력은 미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중,일 삼국을 잇는 새로운 삼국지를 열어보고자 하는 꿈을 가져본다. 십년 전 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자원봉사대원으로 파견되어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 3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나라로 대접받는다. 그들도 한국처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싶은 생각과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은 그들의 욕구를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우리는 형식적인 국제 사회 활동과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제 그 첫걸음을 걸어나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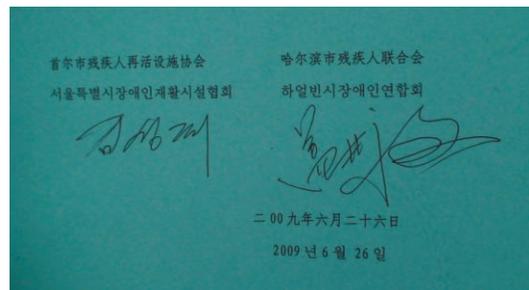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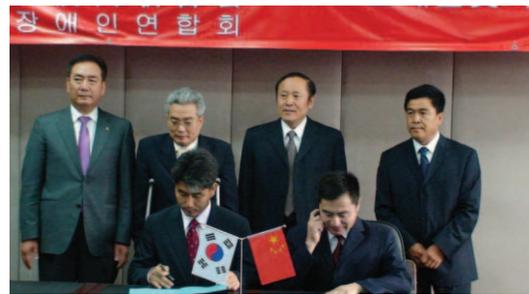
일본으로 나를 초청한 히라노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난다.

“어떻게 한국은 자신들이 몇십년을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단 몇년 만에 이룩할 수 있었는가?”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하고 있는가?”

이제 한국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여야 할 때이다. 주변국들이 궁금해하며 부러워하는 것들에 대해 의미 있는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보완되고 더 확충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후에 역할을 하기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금 걷는 이 발걸음이 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희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제공할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있는 장애인 전문가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류협력을 가지길 원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삼국지의 꿈을 통하여 한, 중, 일의 장애인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EM실천의 夏



## HOT 소식

4월 17일 현수막기능보강사업으로 실사출력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전문적 인쇄업체로서 고객의 만족과 근로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200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재단기를 교체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인쇄물 기대하세요.

6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DM발송계약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DM발송계약으로 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제공과 수익창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월 30일 노동부 [함께만드는 일자리 희망] 경과적일자리 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EM실천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회진출과 일반기업체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프로그램

4월 6명의 근로회원이 동아리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포천초등학교 영어교사이신 나혜영 선생님께서 자원봉사자로 이끌어주고 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독서, 영어교육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지식을 쌓고,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6월 7명의 근로회원의 생일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5월-6월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는 이미용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항상 멋진 모습유지하세요.

6월 18일 가족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명의 가족분이 참석해 주셨으며, <글과 함께하는 인생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6월 취업유지모임이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볼링게임을 치며 스트레스를 한방에~!

## 교육

4월 10일 관악소방서에서 18명의 근로회원이 화재의 유형, 원인 및 화재시 대처방법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1-22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이 서천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임성수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 기관방문

4월 6일 송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관방문이 있었습니다. DM발송사업 및 인쇄사업과 관련된 내용들로 체계적인 사업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 21일 성모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내방이 있었습니다. 6명의 근로장애인분과 선생님께서 내방하셨으며,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 실전에서 업무와 훈련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 일하는 당신이 아름답다!

사업체명 (소재지)	채용수 (성별)	연령	학력	직종등 업무내용	월평균 (기본)	근무시간	고용 형태	근무지
씨에스리더 (강남구)	고객상담원 (여00명)	20~30세	고졸	LG계열 상담직	월120만원	9:00~18:00 (토~13시)	상용직	강남구
효성ITX	고객상담원 (무관00명)	~40세	고졸	KT인바운드	월120만원	9:00~18:00 (주5일)	상용직	중구
(주) 온세일 육팔오	고객상담원 (무관5명)	무관	고졸	주간-아웃바운드 (꽃배달서비스등) 야간-인바운드 (대리운전연결)	월125만원	09:00~18:00 (격주토:14시)	상용직	강남구
(주) 온세일 육팔오	영업기획 사무원 (무관3명)	무관	고졸	법인영업, 가맹점업체 확보	월140만원	09:00~18:00 (격주토:14시)	상용직	강남구
엑시비전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무관1명)	무관	고졸	센서리더등보조공학기기 소프트웨어개발	월167만원	9:00~18:00 (주5일)	상용직	관악구
(주)씨아이씨 코리아	고객상담원 (무관00명)	20~34세	고졸	일반문의상담 : 전화요금 문의 및 고객정보 변경등 기술지원상담 : 서비스이용 및 설치방법, 인터넷회선 IP확인	월130만원	09:00~18:00 (격주토요일 근무-일반) (주5일-기술)	계약직 12개월	용산구
인우기술	고객상담원 (무관00명)	20~30대	고졸	G-Market 인바운드 상담	월100만원	09:00~18:30 (주5일)	계약직 12개월	관악구
인우기술	고객상담원 (무관00명)	20~45세	고졸	보험, 카드 세일즈	월100만원	09:00~18:30 (주5일)	계약직 12개월	관악구
신일산업	제과제빵원 (무관00명)	20~35세	무관	제과제빵	월120만원	07:00~16:00 (평일) 주5일	상용직	동작구
데이몬월드	마트판매원 (여00명)	무관	무관	제품시연, 시음행사 담당	월80만원	11:00~19:00 13:00~21:00	계약직 12개월	상봉, 양천, 양평
신앙이앤지	아파트경비원 (남4명)	65세 이하	무관	아파트 경비	월101만원 월119만원	격일제 근무	상용직	잠실 대치
신앙이앤지	미화원 (여3명)	65세 이하	무관	건물 청소	월65만원	09:00~16:00	상용직	잠실
바른사람	매장정리원 (남00명)	19~30세	고졸	매장정리, 물건 운반	월95만원	근무시간대 다양 평균2교대 (주5일)	계약직	서울 전역
상신운수(주)	택시운전원 (무관00명)	25~60세	무관	택시운전 (2교대)	월90만원	04:00~16:00 16:00~04:00	상용직	구로구
케이엔네트웍(주)	고객상담원 (무관)	22~37세	고졸	우리/국민은행 콜센터 인/아웃바운드	월130만원	09:00~18:00 (주5일)	상용직	종로구 광진구 중구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지하철 운영기관입니다



1234 HappyTrain

꿈과 희망의 무지개레일

서울메트로의 BI가 새로워졌습니다.

고객의 꿈과 희망을 무지개레일에 담아

1등 공기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서울메트로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세요!

서울메트로 고객센터 1577-1234

[www.seoulmetro.co.kr](http://www.seoulmetro.co.kr)



"EM실천 여름캠프에 서울메트로의 후원이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